

석사학위 청구논문

평화통일에 대비한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 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한 석 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김 은 경

199 년 월

평화통일에 대비한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 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한 석 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년 월 일



제출자 김 은 경

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년 월 일

심사 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초록>

평화통일에 대비한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김 은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한 석 지

미래의 한국사회가 통일된 사회라면 그러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통일교육이다.

오늘날 국제 사회는 종전까지의 이념적인 대립에서 오는 긴장감이 없어지고, 평화와 화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간의 발전과 번영을 앞세우는 실용주의적인 새로운 경제적 협력과 경쟁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북방관계의 급속한 변화화, 남북한간의 관계 변화 등 통일환경의 변화는 그 어느때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위한 교육이 되지 못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한국의 통일교육은 확고한 교육학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책상의 고려에 의해, 또는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에 의해 실시됨으로써, 이론적 체계나 교육 내용 및 방법상의 일관된 틀을 지니지 못한 채 그때 그때의 정치적 목표 구현에 맞추어져 왔다. 이는 민족적인 당위로서가 아닌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통일교육정책이 바뀌었으며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등에 있어서도 단선적이고 감정적인 교육에 치우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판단 없이 북한사회의 비참함이나 도발성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통일조국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통일교육은 국가 사회의 존립과 발전, 민족의 생존권 확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과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교육은 불신과 대립의 냉전구조 속에서 반세기를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현행 학교통일교육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첫째,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으로서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 민족공동체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교육,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교육,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교육이며,

둘째, 통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의 개선방향으로 인지적·정의적 목표의 균형된 편성, 차별화된 교육내용, 이념적 교육의 지양과 민주주의의 올바른 인식, 민주시민의 자세, 한국의 민족주의와 통일의 당위성을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통일관련 전공자의 통일교육 담당, 효율적인 교재와 학습방법의 모색,

셋째, 교육정책상의 개선방향으로서 통일교육시간의 제도적인 확보, 통일교과서의 분철 및 내용개편, 학습자 중심의 체험적 수업모형 개발, 종합생활기록부 및 대입수능시험에의 반영을 제시하였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II. 이론적 배경	5
1. 통일교육의 개념	5
2. 통일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8
3. 통일교육의 성격	10
III.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	12
1. 제1공화국의 통일교육	12
2. 제2공화국의 통일교육	13
3. 제3·4공화국의 통일교육	14
4. 제5공화국의 통일교육	15
5. 제6공화국의 통일교육	16
6. 김영삼정부의 통일교육	17
IV.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분석	21
1.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의 실태	21
1) 윤리교과	21
2) 공통사회교과	28
3)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의 실태	32

2. 통일의식에서 본 통일교육의 실태	34
1) 일반적인 통일의식	34
2) 통일교육의 효과	40
V.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7
1.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47
1) 현행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47
2)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49
2.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55
1)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55
2)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적 차원의 개선방향	61
3) 통일교육의 정책적인 차원의 개선방향	62
VI. 결론	64
참고문헌	66



표 목 차

표1. 통일교육목표의 변천과정	19
표2. 윤리와 수업을 위한 교과서 내용과 시간배정	24
표3. 윤리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학습내용	25
표4. 제5단원 내용조직표	26
표5. 공통사회 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학습내용1	30
표6. 공통사회 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학습내용2	31
표7.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	32
표8. 북한에 대한 인식	35
표9. 통일시기 예상	36
표10. 통일의 이유	36
표11. 남북통일의 장애요인	37
표12. 통일후의 갈등 분야	38
표13. 남북통일의 형태	38
표14.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	39
표15. 통일교육에서의 강조점	39
표16. 북한에 대한 이해에 따른 집단별 평균비교	40
표17. 남북관계 인식에 따른 집단별 평균비교	41
표18. 통일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별 평균비교	42
표19.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에 따른 집단별 평균비교	43
표20. 한반도 통일환경에 따른 집단별 평균비교	43
표21.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별 평균비교	44
표22.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별 일원변량분석	45
표23. 통일교육 효과에 대한 집단간 평균차이: 종합	45
표24. 통일교육 효과에 대한 집단간 일원변량분석: 종합	46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강대국의 점령정책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으며, 1950년에는 국제적인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게 되었다.

그 이후 남북한에는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분단이라는 민족적인 비극을 안은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이후 줄곧 그치지 않는 국민적인 염원으로서 민족대통일이라는 염원을 모든 국민이 갖게 되었다.

남북의 분단으로 우리 민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남북한의 이질감은 더욱더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대 국민적인 열의는 현재 북한의 가장 극심한 문제로서 식량부족에 따른 식량지원과 대 경수사업지원,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라는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통일에 대한 대비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의식에 있어서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인 교육적 측면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의 금강산지역의 관광이 허용됨으로써 통일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어 있으나 이것으로 통일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또한 이런 모든 일들이 분단 1세대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정작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있어 분단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어른들의 아픈 상처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은 관광의 대상으로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준비는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소원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그들 자신이 통일의 주역이며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노력들이 이뤄져야만 한다.

이는 교육은 국민들에게 국가의식과, 정치적 소양을 길러주고 동질성을 높여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측면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금의 청소년들이 통일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라는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준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분단이 가져다 준 이질화현상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통일교육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통일교육은 통일을 위한 준비로서 가장 중요한 차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할 수 있으며,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통일교육이 되기 위한 지침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의 발전적 측면의 지침마련을 위하여 현행 고등학교 정치교과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어떠한 변천을 통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며, 또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현행 고등학교 정치교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치교육 중 통일교육을 연구의 범위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로서 자료분석법과 이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는 연구와 관련된 정책자료, 연구논문, 기타 참고자료를 분석하여 재구성하는 이론적 접근방법과 교과서 내용분석법으로 현행 고등학교 정치교과 즉 정치를 다루고 있는 교과로서 사회교과와 윤리교과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를 통일 의식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조사가 아닌 임의조사로서 선행 조사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조사연구를 대신하였으며, 이러한 선행 조사된 내용은 통일의식에 대한 조사연구로 설문 대상으로서는 통일교육 연수교사와 일반교사, 학생으로 구분되었으며, 통일교육 연수교사는 현행(제6차 교육과정) 통일교육을 연수받은 교사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의 통일의식과 또한 통일교육을 연수받은 교사와 일반교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통일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의 파악, 그리고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통일의식을 분석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시절 배운 통일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에 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체조사가 아닌 임의조사로서 선행연구를 취사·선택함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또한 그 범위를 고등학교에 한정시킴으로써 중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실태를 파악하지 못함과 아울러 중학교 통일교육과 연계시키지 못하였으며, 윤리교과와 사회교과에 한하여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다른 교과와 관련하여서 파악하지 못함에 한계가 있다.

연구의 기본방향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이론적인 근거로서 통일교육의 의의와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개념규정과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3장에서는 통일정책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고등학교 정치교과에 있어 통일교육을 형성하게 된 토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고등학교 정치교과의 내용을 분석하고, 또한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학생과 교사들의 통일의식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제5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의 새로운 지침 마련을 위한 통일교육의 문제점 파악과 이를 위한 대책마련의 차원에서 새로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통일교육의 개념

우리에게 있어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통일을 대비한 교육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어떠한 통일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통일의 의미가 정확하게 정의되었을 때 통일교육의 의미도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평화통일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태가 되면 평화통일의 상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의 의미와 함께 통일교육의 의미가 정의되어야 한다.

먼저, 평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화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전제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평화는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동태적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둘째 평화는 그 자체가 목적일 뿐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평화가 목적으로만 간주될 때 ‘평화를 위한 전쟁’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으며 그 때 평화의 의미는 한층 애매모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평화가 실질적이어야 한다. 맹목적인 반전논리(反戰論理)나 감상적 평화주의로는 평화를 구축하지 못한다. 즉 단순한 전쟁반대의 주장이나 염원만으로는 실질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평화는 쌍방의 자주적 가치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협조적이어야 한다.¹⁾는 것이다. 갈 퉁(J. Galtung)은 이러한 평화의 의미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인 평화(positive peace)’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소극적 평

1) 한석지(1994), “세계 냉전체제의 붕괴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논문집」, 제39집, 제주대학교, p. 480.

화는 단순히 전쟁과 폭력의 부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적극적 평화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 배제되고 동시에 자아실현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넓게 이해되고 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전쟁 그 자체를 부정할 뿐 아니라 인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2)

따라서 이러한 갈통의 평화의 개념에 따르면,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평화를 생각했을 때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는 남북통일이 실현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소극적 평화를 정착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적극적 평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으로 남북한간의 대립과 긴장을 해소하여 안정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평화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평화통일을 앞당겨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상태가 되면 통일이 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체로 '두개 이상의 주권적 행위 주체가 하나의 행위 주체 자로 된 상태'라는 형식적 정의와, 일정 영역내의 인간 집단 내에서 개개인의 이해와 견해 차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여 필요한 변경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인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이 구성원들간에 형성되어있고, 또한 이러한 기대를 성취할 수 있는 기구가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³⁾라는 다소 복잡한 정의가 있으나, 통일은 정치·사회·문화·경제·지리 등 우리 민족의 삶과 진운을 둘러싼 여러 측면을 미래라는 새로운 상황과 접목시켜 하나의 민족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통일은 국토분할과 국권분할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간의 대립과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문화적 요소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로 되는 국토통일, 국권통일, 국민통합과 더불어 가치의식의 융합을 달성하여 새로운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모든 개념을 종합해 보았을 때, 평화통일은 남북한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국토분할과 국권분할에 의해

2) Johan Galtung(1980), *The True Worlds : A Transnational Perspective*, Free Press, pp.30~31.; 상계서, p480에서 재인용.

3) 이상우(1977),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한 관계개선방안", 「한국의 안보환경」, 서향각, pp.545~596.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간의 대립과 경쟁의 장기화로 사회 문화적 요소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로 되는 국토통일·국권통일·국민통합과 더불어 가치의식의 통합을 달성하여 한 핏줄 한겨레의 한민족이 보다 복되고,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즉 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유, 평등, 복지 등의 기본 가치가 구현되며,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것으로 이때의 모든 과정은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평화통일은 통일의 과정에서나, 그 결과나 모두 평화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을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통일교육은 그동안 여러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안보교육, 이념교육, 통일 안보교육, 국민정신교육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통일교육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통일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즉, 지금까지 통일교육이 여러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통일을 중시하느냐, 안보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졌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전쟁억지수준의 군사적 안보에만 안주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폭력에 의한 통일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안보’와 ‘통일’을 연속개념으로 설정하여 두 개념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지 않고 균형적(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의 매개개념이 바로 ‘평화’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더 이상 안보교육이나, 통일안보 교육의 차원을 넘어선 평화통일을 대비한 교육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진지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추어 장차 통일실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의 두 측면이 함께 다뤄져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생존과 체제, 그리고 통일의 현실적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춘 균형 있는 통일 안목의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⁴⁾. 즉, 통일교육은 평화통일에 대비한 교육으로서 통일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선택과 비판을 위한 분석 능력과 의사결정 기능을 숙달시키며, 통일국가를 성취하려는 당위성과 통일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가치 등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 된

4) 신상조(1992),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교육월보」, 제123호, 교육부, p. 42.

삶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⁵⁾으로서, 이때의 모든 통일은 평화통일을 의미한다.

2. 통일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의 통일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 교육이란 ‘나’와 ‘너’라는 개별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사회적 존재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인간형성의 과정⁶⁾으로서 의식·태도·행위등을 학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통일은 일차적으로 정치·경제체제와 사회구조의 통합이지만, 체제와 구조의 통합은 의식과 가치관의 융합이 없으면 불가능하기에 통일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즉, 정신적인 통합 없이는 물질적 통합은 실현시키기도 어려우며, 설령 인위적으로 물질적 통합을 성취하였다 해도 정신적 원심력의 작용 때문에 참다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오히려 이질적인 요소를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이 뒷전에 머물러 있는 통일논의는 비현실적이며, 교육은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통일교육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원은 통일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⁷⁾

첫째, 자주적·민주적·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인 이해 기반의 확충과 함께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 창출을 위해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건전한 행위규범을 온 국민들이 갖도록 하며,

둘째, 통일조국의 형성과정과 장차 통일조국이 경험하게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 야에서의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식과 대응능력

5) 鄭世九(1993), “統一教育의 實態와 問題點”, 「社會科教育」, 第26號,

韓國社會科教育研究會, p. 23.

6) 이중(1977), 「교육과 사회」, 배영사, pp. 25~27.

7) 통일원(1995),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통일원, p. 4.

을 신장하고,

셋째, 세계 속의 새로운 통일조국 및 한민족의 위상과 세계발전을 위한 한민족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통일교육의 목표는,

첫째, 우리 민족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능력을 증진시키고,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객관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자주적·민주적·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됨을 인식시키며, 이런 통일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사고체계를 갖게 한다.

둘째, 남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가르침으로써 그 차이를 알게 하며, 문화적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찾고 강조함으로써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셋째, 통일에 장애가 되는 국내외 환경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넷째, 통일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창출해 가는 과정을 알게 하며, 통일에 대한 상이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준다.

다섯째, 통일조국의 이념과 미래를 알게 하고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며, 통일조국은 인간답고 자유스러우며 평화롭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할 수 있는 가치와 태도를 길러준다.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세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길러준다이다.

즉, 통일교육의 목적은 장기간에 걸친 교육계획 하에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基礎的 知識과 이해력을 원리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에서 배양하여 통일을 성취하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장차 통일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에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⁸⁾

8) 신상조(1992), 전계서, p.42.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통일교육은 평화통일을 대비한 교육으로 통일에 대한 합리적 태도와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 기능을 배양하고, 또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제반문제를 이해하고 북한 공산체제의 실상을 학생들에게 파악하게 함으로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김과 동시에 통일 이후에 나타나게 될 문화지체현상을 최소화하며 단순한 지리상의 통일이 아닌 정신문명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모색하려는 데 그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3. 통일교육의 성격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아울러 정치교육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성격을 정치교육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정치교육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 지배적인 관념, 행동규범 등을 정당화하고 이것들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내면화시킴으로써 그 사회의 가치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의 경우 정치교육은 권력집단의 자기유지·발전을 목표로 한 성격이 강하여 늘 사회체제를 안정시키고 굳히려는 보수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적대관계를 유지하던 남·북한이라는 권력계층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한 편의 흡수를 의미하며 다른 한 편에서는 국가와 체제가 소멸되는 위기감을 가져옴에 따라 통일문제를 양측 권력집단의 생존경쟁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 졌다. 그리하여 통일교육은 국민의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방식이 강한 정치 교육적 성격을 갖게 되고 이 때문에 힘의 논리가 등장하였으나 평행선을 그어 왔었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와 체제 또는 영토의 통합이 우선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경험함에 따라 인적통합인 민족통일을 먼저 이루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이질감을 없앤 후에서야 국가와 체제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교육 역시 과거의 보수적 성격을 벗어나 좀더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것이어야 한다. 정치교육의 일차적인 과제는 기존 정치질서의 안정과 유지에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들로 하여금 기존의 사회규범에 항상 동조하게만 하여서는 안되며 정치교육의 궁극적 과제는 좀더 혁신적인 것이어야 한다.⁹⁾

이러한 정치교육의 혁신적 기능은 인간화를 저해하는 사회의 모든 억압적인 요소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인간, 즉 성숙하고 자립적인 미래의 인간을 만드는 일이다. 이는 현존하는 권력구조 혹은 지배구조를 보존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비판의식을 길러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 내고자 하는 정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¹⁰⁾

이러한 정치교육의 성격을 규정해 보면, “한 국가가 그 생활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고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능력, 태도, 자신 등을 포함하는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적 노력”¹¹⁾을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의 성격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진지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추어 장차 통일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의 두 측면이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생존과 체제, 그리고 통일의 현실적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춘 균형 있는 통일 안목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라”¹²⁾할 수 있다.



-
- 9) 정영수(1986), “정치교육이 전인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한국 정치교육의 개선방향 모색”, 『한국교육』 제13권, pp.64~66.
 10) 한국교육개발원(1986), 『한국정치교육의 이념(Ⅱ)』, 한국교육개발원, p.64.
 11) 국민윤리학회(1983), 『정치교육』, 형설출판사, p.17.
 12) 경남교육청(1992), 『민주시민교육 및 통일교육 추진계획』, 경남교육청, p.20.

Ⅲ.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

우리 나라의 통일교육은 시기별로 통일정책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주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권이 바뀔에 따라 통일교육의 방향이 달라졌다.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은 변화하였으며 동시에 통일교육의 방향도 새로운 정권의 통일정책에 맞게 바뀌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각 공화국별로 통일정책을 달리 하였으며 그에 따른 통일교육도 변화하였음에 따라 여기에서는 이러한 통일교육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공화국별로 그 시기를 나누어 각공화국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의 역사를 살펴보고 자 한다.

1. 제1공화국의 통일교육

제1공화국은 대한민국만이 유엔결의에 의거하여 수립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강조하면서 통일정책으로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에 공석으로 남겨둔 100석을 채우도록 촉구하며, 북한수복은 북한 동포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성취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북한주민의 자유의사가 계속 봉쇄되는 경우에는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¹³⁾ 이와 같은 통일방안은 먼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모색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무력에 의한 통일도 불사한다는 것으로 흡수통일과 복진통일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은 반공주의에 근거하여 북한을 승공통일 하겠다는 ‘승공통일론’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실질적 통일방안이라기 보다는 국내적 및 국

13) 이정희외(1997), 「민족통일론」, 형설출판사, P. 82.

제적 여론을 위한 정치 선전용으로서 다분히 비현실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통일정책을 바탕으로 한 제1공화국시기의 통일교육을 살펴보면, 해방 직후 좌우익의 대립은 심각할 정도였으나 미군정 당국은 반공정책을 특별히 강조하여 펴지는 않았으며 좌우정당의 난립을 인정하는 실정이었다. 심지어 미군정 하에서 한국인만으로 이루어진 한국교육위원회나 교육심의회에서도 대공이론은 전혀 문제로 삼지 않았다.¹⁴⁾

정부수립 이후에도 공산주의에 대하여 경계나 주의 정도의 방어적 측면의 ‘반공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민주적 민족교육에 치중하였다.¹⁵⁾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반공은 심각한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어 반공교육을 민주시민교육과 아울러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도덕성 타락과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의 도덕교육 시간을 특설하는 등 도덕교육을 강화하게 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 기에는 반공교육이 제도화되면서, 반공교육과 도덕교육이 일원화되었고 ‘道義教育 要項’에 반공·반일의 항목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는 고등학교, 1957년에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도덕교과서를 국정으로 개발 보급하기 시작했다.

2. 제2공화국의 통일교육

4·19혁명에 의해 정권을 인수하게 된 민주당 정부의 통일방안은 자유당의 완고한 무력통일론을 철회하고 “남북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이라는 「제네바」 원칙을 따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민주당 정부는 1960년 8월에 발표한 외교시정방침에서의 「유엔」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을 통한 선거에 의한 통일 정책을 수행한다』고 천명하였다.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 즉 민주당 정부의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로, 구체적인 통일방안으로써 ①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을 통한 완

14) 정영수의(1986), 「한국교육정책의 이념(II)」, 한국교육개발원, p.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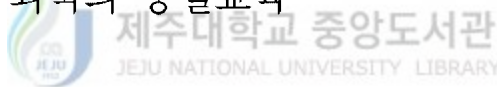
15) 추병완(1992),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새교육」, 한국교육신문사, p. 452.

전한 자유선거로써 평화통일을 도모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감시위원단의 구성원은 유엔결의로서 선임하되, 각자 진정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회원국가로 할 것이다.③ 선거 이전에 남북연합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안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고 한 유엔결의와 배치되므로 이를 반대한다.④ 통일 전 남북교류문제는 공산 파괴공작이 진정하게 정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다.⑤ 통일된 한국은 민주주의와 민권 자유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며, 적색독재나 백색독재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¹⁶⁾고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당시 재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통일론’을 적절하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수용하지 못했고 종전과 다름없는 ‘유엔감시하의 남북 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론’을 교육시켰으며, 한편으로는 ‘반공교육’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일반의 요구와 정부의 의사와는 심각한 괴리 현상이 발생하여 ‘반공교육’은 사실상 무의미한 정도의 수준이었다.

3. 제3·4공화국의 통일교육



제3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유엔감시 하의 남북한 자유 총선거라는 기존의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특색이 있었다. 따라서 안으로는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증강에 주력하였고, 밖으로는 외교강화를 통해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역량배양의 토대 위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실천적 노력에 주력하였다.

제3공화국은 제2공화국시대의 극에 달한 국내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해이된 반공의식을 재 강화하며, 무분별한 통일 논의에서 야기된 국론분열을 극복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선건설후통일’이었으며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 일어난 미·소, 미·중, 중·일간의 화해와 동·서독간의 활발한 접촉 등 국외환경에 의한 통일체제에 있어서의 대화투입에 대한 강력한 요구, 국내정치 환경의 혼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경제력의 균형을 이룩한 시점에

16) 국토통일원(1983), 「통일문제」, 국토통일원, pp. 7~8.

서부터 대북 자신감은 서서히 남·북 대화의 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제4공화국 정부의 통일정책의 추진방향으로는 ①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한 평화 통일정책추구, ②남북당사자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민족의 운명과 통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주적 통일정책 지향, ③ 민주적 방식에 의한 통일국가의 형성과 민주통일을 지향, ④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결실을 추구하는 단계적 통일¹⁷⁾을 추구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제2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적극화된 ‘반공·승공 교육정책’을 전개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에 추가된 반공교육의 일반목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하고 공산주의 침략을 격멸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하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¹⁸⁾고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기본 목표를 민주교육에서 민족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민족주체성과 국력배양을 강조함에 따라 학교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반공·도덕교육을 강화하였고, 동시에 초·중학교에서 교과교육과는 별도로 반공·도덕시간을 특설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의 「일반사회」와 「국민윤리」 「정치·경제」에서 반공·도덕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반공교육과정이 처음으로 한 분야를 차지하게 되었다.

1971년 12월6일 이후 유신체제 출범 후, 제3차 교육과정에서 반공·도덕생활 영역으로 지도하던 것을 교과활동에 포함시켜 ‘도덕과’라는 독립된 교과를 설치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국민윤리’가 사회과로부터 독립하여 필수 교과가 되었다.

교과서는 ‘국민윤리’와 ‘자유수호의 길’로 나누어져 있다가 1979년에 다시 ‘국민윤리’로 통합하였다

4. 제5공화국의 통일교육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은 1981년 1월21일, 전두환 대통령의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상호방문제의를 계기로 새롭고 진취적인 면모를 띄게 되었다.

17) 국토통일원(1992), 「통일백서」, 국토통일원, pp.36~43.

18) 교육부(1993), “통일교육지도자료”, 「장학자료」, 제89호, p.11.

즉 '70년대 평화체제의 정착과 교류의 확대'가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제 하에 정치적 노력을 등한시켰던 남한정부는 비정치적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 들의 '통합의지'가 통일에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하에 '정상회담'제의 및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또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방안으로서 1982년 2월 1일에 '20개 시범실천사업'을, 동년 9월21일 '통일문제해결의 돌파구'로서 남·북 최고책임자회담 제의 등 일련의 제안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제5공화국 정부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반공교육 일변도의 통일교육이 아닌 통일·안보교육을 내세웠으나 본질적인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통일교육의 주안점은 국민정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반공교육의 체계적인 지도를 강조하게 되어 교육내용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게 되어 기존의 적대적인 어휘를 상당히 순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우월성을 강조하였고,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실상에 대한 비판과 남한의 통일정책의 홍보 등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5. 제6공화국의 통일교육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정부는 과거와 차원을 달리하여 통일문제에 접근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색을 향한 통일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노태우정부는 국내의 '민주화 및 통일운동'을 '제도권'에 반영하고 북방정책의 결실과 맞물려서 「남북정상회담제의」, 「7·7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등을 제안하는 등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개방화,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활발한 통일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을 가장 구체화·체계화 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하에 단계적·점진적 통일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제6공화국 정부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제4차 교육과정의 부분적인 수정을 하게 되고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정하였다. 이처럼 그 명칭을 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통일안보 교육이란 말은 반공교육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편향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② 통일안보 교육이란 말은 반공교육이 갖는 의미와는 달리 북한 동포에 대한 친밀감 및 ‘언젠가는 합쳐야 할 반쪽’이라는 인식의 지평을 열어 주며, ③ 반공교육이란 남쪽에서 할 일만을 연상시킴에 반하여 통일안보 교육은 남과 북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도록 하며, ④ 통일안보 교육은 우리 나라 체제와 생존 및 통일을 위협하는 것 일체에 대한 경계를 뜻하므로 오히려 반공보다 더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¹⁹⁾

이에 따라 반공생활 영역의 내용에 공산 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민주시민 정신 고취 등의 내용이 보강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에는 북한은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반쪽으로서 언젠가는 합쳐져 같이 살아야 할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6. 김영삼정부의 통일교육

19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은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의 3기조 위에 「화해·협력」의 단계,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서 「통일국가」의 최종 단계에 이른다는 단계적인 통일방안이다. 김영삼정부의 통일정책의 주요내용은 ① 『통일조국의 미래상』 제시를 통한 국민 통일외지 강화, ② 『3단계 통일방안』의 정당성, 현실적 타당성 강조, ③ 통일목표를 우리 내부에서부터 실현, ④ 북한실상 홍보를 통한 북한의 개방·개혁의 필요성 강조, ⑤ 마, 정부의 남북간 합의사항 실천노력 강조, ⑥ 남북간 당면 현안문제, ⑦ 이산가족문제, ⑧ 남북교류 협력이다.²⁰⁾ 이러한 통일정책을 추구하는 김 영삼 정부는 제6공화국 시기의 통일 지향적 성격의 교육보다도 더욱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제6차 교육 과정을 마련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19) 송병순(1994), “남북한 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 「한국교육연구」, 한국교육연구소, pp. 24~26.

20) 이정희외(1997), 전거서, pp. 119~127.

시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그전의 통일·안보교교육은 안보체제에 지나치게 강조됨으로 인하여 민족의 평화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다 새로운 방향에서 안보 보다는 통일을 강조하는 정치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통일교육의 내용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 민족공동체 형성과 민족의 정체성, 통일의 과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등을 주로 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도덕교과의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그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1>와 같다.

<표1> 통일교육 목표의 변천과정

<p><초등학교></p> <p>교수 요목기 : 멸공·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전국(全局)과 국제 집단 안전보장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한다.</p> <p>1차 교육과정 : 투철한 반공정신 고취와 세계 시민으로서 자유 우방과 교류한다.</p> <p>2차 교육과정 : 공산주의의 그릇됨과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깨닫고, 애국애족 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른다.</p> <p>3차 교육과정 : 민주주의의 우월함과 공산주의의 그릇됨을 알고, 국토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기른다.</p> <p>4차 교육과정 : 북한 공산당의 그릇됨과 침략성을 경계하고,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이해하여 평화통일의 신념을 가지게 한다.</p> <p>5차 교육과정 : 국토분단의 현실과 북한 공산 집단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우월성을 알아,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p> <p>6차 교육과정 :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올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p> <p><중학교></p> <p>교수 요목기 : 반공 사상 함양, 정신무장.</p> <p>1차 교육과정 : 애국애족사상 고취, 반공·방일 정신 배양.</p> <p>2차 교육과정 : 국가 민족에 대한 자랑과 사랑을 간직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하여 공산 침략주의를 격멸함으로써, 민주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결의를 굳게 한다.</p> <p>3차 교육과정 : 공산주의의 모순과 허구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깨달아 공산주의의 침략 분쇄의 결의를 굳게 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국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게 한다.</p> <p>4차 교육과정 :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북한 공산 집단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게 한다.</p>

5차 교육과정: 국토분단의 비극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깨달아 조국의 민주적 평화적통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며 북한 공산 집단의 실상과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발전 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

6차 교육과정: 국가, 민족, 문화를 사랑하고, 국토와 민족 분단의 현실 및 남북한의 통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과 통일국가의 실현 의지를 가지게 한다.

< 고등학교 >

교수요목기: 북한 공산 집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반공교육의 필요성 대두.

1차 교육과정: 애국·애족 사상 고취, 반공·방일 정신 배양.

2차 교육과정: 공산주의의 모순과 허구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깨달아 공산주의의 침략 분쇄의 결의를 굳게 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 하려는 국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게 한다.

2차 교육과정: 공산주의의 모순과 허구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깨달아 공산주의 침략 분쇄의 결의를 굳게 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 하려는 국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게 한다.

3차 교육과정: 공산주의의 허구성, 기만성, 침략성 등을 이론과 실제 면에서 분석·비 판하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능력을 길러 평화적 승공민주통일의 신념을 굳게 한다.

4차 교육과정: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러 민주적 평화 통일의 신념을 굳게 한다.

5차 교육과정: 조국통일의 당위성과 제반 문제를 이해하고 북한 공산 체제의 실상을 파악 함으로써 민주 평화 통일의 실현을 위한 신념을 가지게 한다.

6차 교육과정: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이해하고, 통일과업의 달성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굳은 의지를 지니게 한다

21)

21) 추병완(1998),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통일교육·홍보(V)』, 통일원, P.16.

IV.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분석

통일교육의 실태는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의 실태와 학생들의 통일의식 및 교사들의 통일의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은 현행(제6차 교육과정) 교육과정에서 정치교과 중 공통사회교과와 윤리교과가 통일교육을 다루고 있음으로 인하여 통일교육과 관련된 두 교과의 목표와 내용 및 지도방법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며, 통일의식을 통하여 본 통일교육의 실태는 선행조사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의 통일의식과 학생들의 통일의식의 비교를 통하여 통일교육담당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배운 통일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연수를 받은 교사와 일반교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통일교육에 있어 교사들의 재교육의 필요성과 통일교육의 효과 및 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교사들의 통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의 실태.

1) 윤리교과

고등학교 윤리과의 경우 교과의 성격상 다른 교과에 비해 통일교육 내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종전의 ‘국민윤리’ 교과의 명칭을 ‘윤리’로 변경하고 ‘90년대 초 탈냉전의 국제적 분위기에 의해 국가윤리와 통일문제를 다루는 이념교육 내용을 수정하였다. 윤리 교과는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윤리과의 통일교육은 통일문제, 민족통일의 조건, 통일 이후의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일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5번째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국가와 윤리’ 단원에 기술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일부 내용에서도 통일관련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5단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윤리과는 한국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윤리적 체계와 이념적 시각을 길러 주고, 그 사상적 근거인 윤리사상의 흐름을 이해하게 하며,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관을 형성한다는 목표아래,

첫째, 청소년기의 위치를 자각하여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고,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게 한다.

둘째, 현대 사회의 생활 윤리를 이해하고, 윤리문제 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길러, 건전한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니게 한다.

셋째, 우리의 전통과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확립하며, 민주 복지 국가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민의식을 지니게 한다.

넷째, 동서양과 한국 윤리사상의 흐름 속에서 현대 윤리의 뿌리를 탐색하게 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와 이념 체계의 사상적 근거를 확립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통일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이해하고, 통일과업의 달성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굳은 의지를 기르게 한다. 라는 5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있다.²²⁾

위의 하위목표 중, 특히 다섯번째가 통일교육의 목표와 관련되는 목표이며 이를 다루고 있는 5단원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²³⁾

<지식>

- (1)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의미를 파악한다.
- (2) 남북한 간에 시도되었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시대 순으로 파악한다.
- (3)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서 남북한 간의 이질화와 적대감을 가져오는 심각성을 깨닫는다.
- (4) 새로운 국제 질서의 전개가 조국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5) 문민 정부의 등장과 자유 민주주의의 신장 등 국내적 통일 환경의 변화를 안다.

22) 교육부(1998), 「고등학교 윤리 교사용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14.

23) 상계서, p.336.

(6) 주변 국가들의 이해와 지원이 조국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전제 조건임을 안다.

(7) 통일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은 곧 나의 일임을 인식한다.

(8) 통일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이해한다.

(9) 남북한 통일을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과 자세를 인식한다.

<기능>

(1) 남북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조국 분단의 배경을 국제적인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3)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의 내용과 의도를 지적해 낼 수 있다.

(4)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설 방안'의 모순점과 의도를 지적해 낼 수 있다.

(5)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조국 통일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을 설명할 수 있다.

(6) 통일의 장애 요인인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대남 전략을 지적할 수 있다.

(7) 통일 환경의 변화를 국제적인 측면과 국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8) 민족과 통일의 시각에서 북한 체제 변화의 양면성을 설명할 수 있다.

(9) 분단국으로서 통일을 성취한 나라들의 통일 과정과 후유증을 알아보고, 교훈을 추출해 낼 수 있다.

(10) 통일 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념적 좌표를 제시할 수 있다.

(11) 조국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해야 할 행위 양식의 구체적인 요소를 설명 할 수 있다.

〈가치·태도〉

- (1) 통일 국가 실현의 전제 조건을 알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2) 남북 통일의 과정을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를 지닌다.
- (3) 통일의 장애 요인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4) 우리의 국론 분열이 조국 통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국론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 (5) 통일 한국의 이념적 좌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상 생활 속에서 내면화 한다.
- (6) 통일 한국의 구체적인 인간상을 내면화하고, 이를 일상 생활 속에서 생활하고자 노력한다

윤리와 수업을 위한 교과서 내용과 시간배정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윤리와 수업을 위한 교과서 내용과 시간배정

단 원 명	지 도 내 용	배정시간	비 고
I. 인간과 윤리	1. 인간의 삶과 윤리 2. 자아 실현과 인격완성 3. 인생에서의 청소년기	17시간	1학년
II. 사회와 윤리	1. 현대사회의 윤리적 상황 2. 현대사회의 생활 윤리 3. 현대사회의 문제와 윤리	15시간	
III. 국가와 윤리	1. 국가 발전과 이념 2.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17시간	2학년 (32시간)
IV. 윤리사상의 흐름과특징	1. 동양의 윤리사상 2. 서양의 윤리사상 3. 한국의 윤리사상	15시간 7시간	
V. 통일의 과제와 전망	1. 우리나라의 통일문제 2. 민족통일의 조건 3. 통일이후의 전망	17시간	3학년 (32시간)
총 합 정 리		8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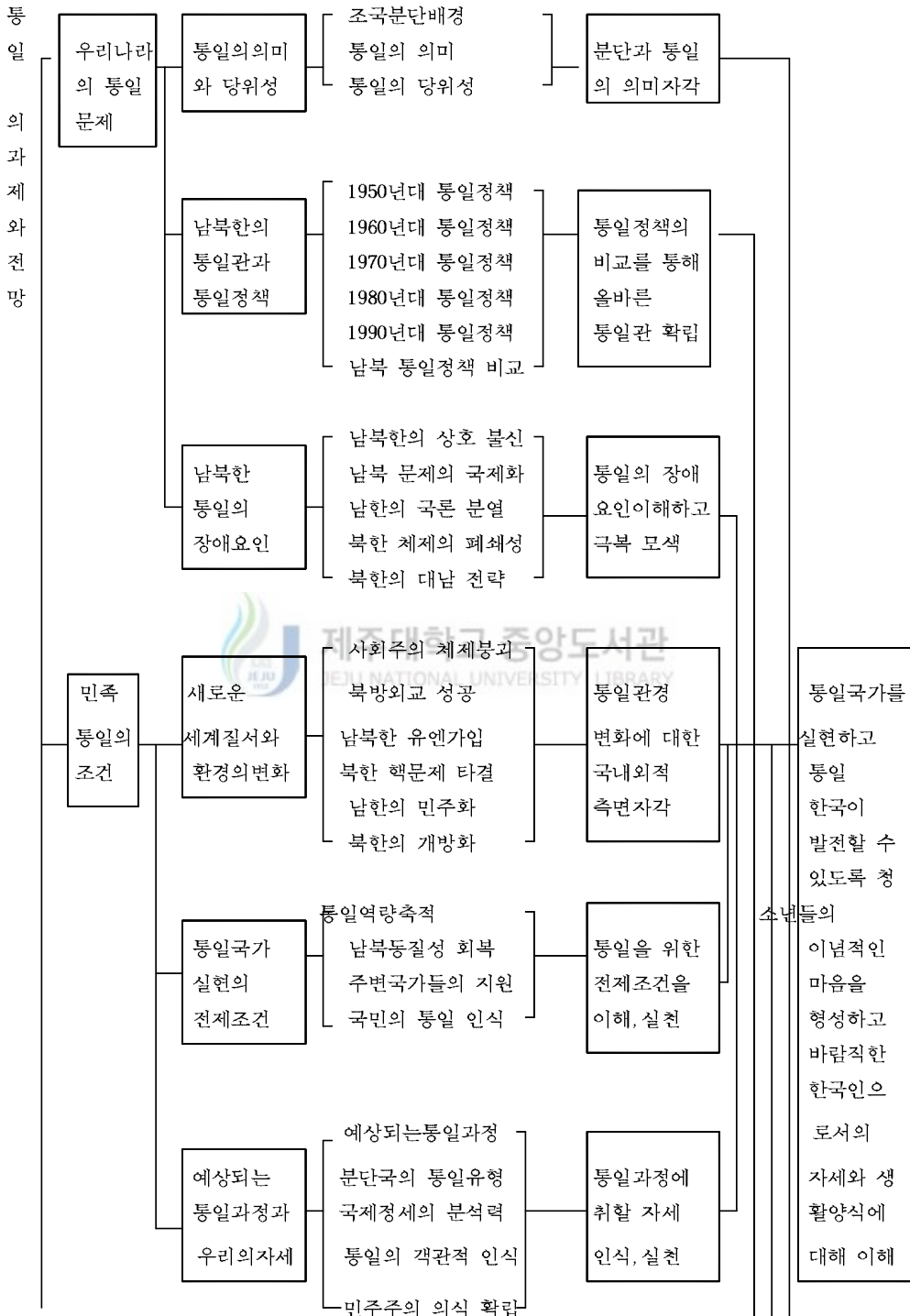
전체 윤리교과의 내용중 통일교육과 관련한 학습내용은 <표3>에 나와 있으며, 이중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다루고 있는 제5단원의 내용은 <표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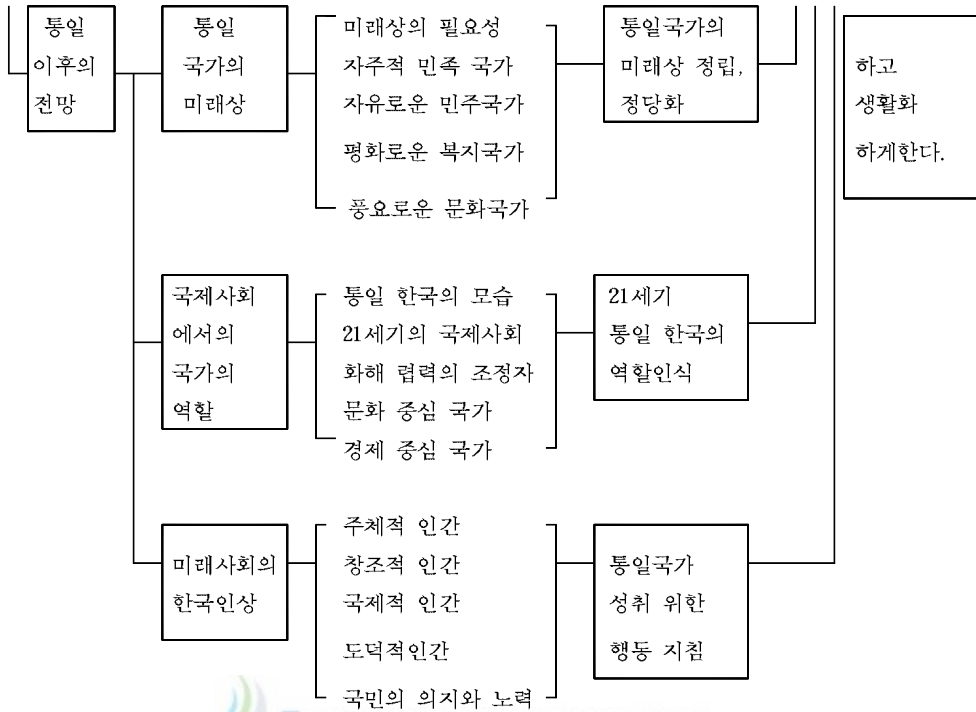
<표3> 윤리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학습내용

교과명	단원	대단원	주제
윤리	III. 국가윤리	가. 국가이념과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본질과 국가관 • 이념의 유형과 전개 • 국가발전과 이념의 역할 • 공산주의의 쇠퇴와 미래의 이념
		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식과 민족주의 • 민주주의의 이념과 특성 • 민주주의의 원리와 생활양식 •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윤리
		다. 국제관계와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계의 본질과 변화 • 국제관계에서의 윤리성 • 국제와 시대에서의 우리의 자각
	IV. 통일의 과제와 전망	가. 우리나라의 통일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 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정책 • 남북한 통일의 장애요인
		나. 민족 통일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질서와 통일환경의 변화 • 통일국가 실현의 전제조건 • 통일의 과정과 우리의 자세
		다. 통일이후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가의 미래상 • 미래사회의 한국인상 할 • 국제사회에서의 통일국가의 역할
	주당수업시간	1 시간	

24) 상계서, p.33.

〈표4〉 제5단원 내용조직표





2) 공통 사회 교과

사회과에서는 ‘공통사회’에서만 이 통일의 문제를 조금 다루고 있으며, 다시 ‘공통사회’에서는 제5단원 개인과 국가라는 단원에서 국제화와 한국 정치의 과제라는 제목하게 통일교육을 다루고 있다.

사회과의 목표는 민주 시민의 양성에 있으므로, ‘공통사회’의 목표도 기본적으로는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사회’는 고등학교의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가 다른 과목과는 차이가 있다. ‘공통사회’의 구체적인 목표를 교육과정에서 보면, ‘종합적인 사회 인식,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의 습득, 국토 보전의 자세 및 올바른 한국인으로서의 태도형성’이 바로 ‘공통사회’의 목표이며 이중 통일교육과 관련된 목표는 ‘올바른 한국인으로서의 태도형성’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이 목표를 ‘세계적 안목을 지닌 한국인으로서 국가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며, 사회 문제들에 객관적,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자세와 통일된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태도’로 제시하고 있다.²⁶⁾

단원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²⁷⁾

<지식>

- (가)법의 속성을 이해한다.
- (나)법의 이념을 파악한다.
- (다)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이해한다.
- (라)적법 절차의 원리를 이해한다.
- (마)형벌의 목적을 이해한다
- (바)권리 주체와 법률 행위를 이해한다.
- (사)기본권 충돌의 해결 원리를 이해한다.

26) 교육부(1998), 「공통사회(상)」,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pp.9~10.

27) 상계서, p.215.

- (아)국제법의 의의를 이해한다.
- (자)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차)선거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한다.
- (카)금융 실명제의 기능을 이해한다.
- (타)근대 이후에 우리가 국제적인 변동에 대응해 온 과정을 이해한다.
- (파)남북 대화의 진행에 관하여 이해한다.
- (하)이익 갈등 해결과 사회 정의 실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기능>

- (가)실정법을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나)정의의 상대성에 대한 예를 열거할 수 있다.
- (다)기본권 침해 사례를 생활 주변에서 찾아 낼 수 있다.
- (라)적법 절차의 원리에 어긋난 사례를 찾아 낼 수 있다.
- (마)형벌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바)민법상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
- (사)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아)선거 공약 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 (자)이해 관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 (차)민족 분단의 원인을 열거할 수 있다.

<가치·태도>

- (가)국민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가진다.
- (나)공공 복리를 위해 자신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진다.
- (다)남의 권리를 존중하며 적법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 (라)나의 의견과 같이 남의 의견도 소중하다는 태도를 가진다.
- (마)정치적 적극적 참여가 주인 의식의 발휘라는 태도를 가진다.

(바)선거시의 공약의 준수 여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지키는 자세를 가진다.

(사)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민족통일을 앞당길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며, 이중 통일교육과 관련된 목표는 지식면에서 (파)남북대화의 진행에 관하여 이해한다, 기능면에서 (차) 민족분단의 원인을 열거할 수 있다.

가치·태도면에서 (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민족통일을 앞당길 수 있음을 깨닫는 다로 통일교육의 내용은 전체 분량에 비해 아주 미세하게 다루고 있다.

통일교육의 내용은 <표5> 와 <표6>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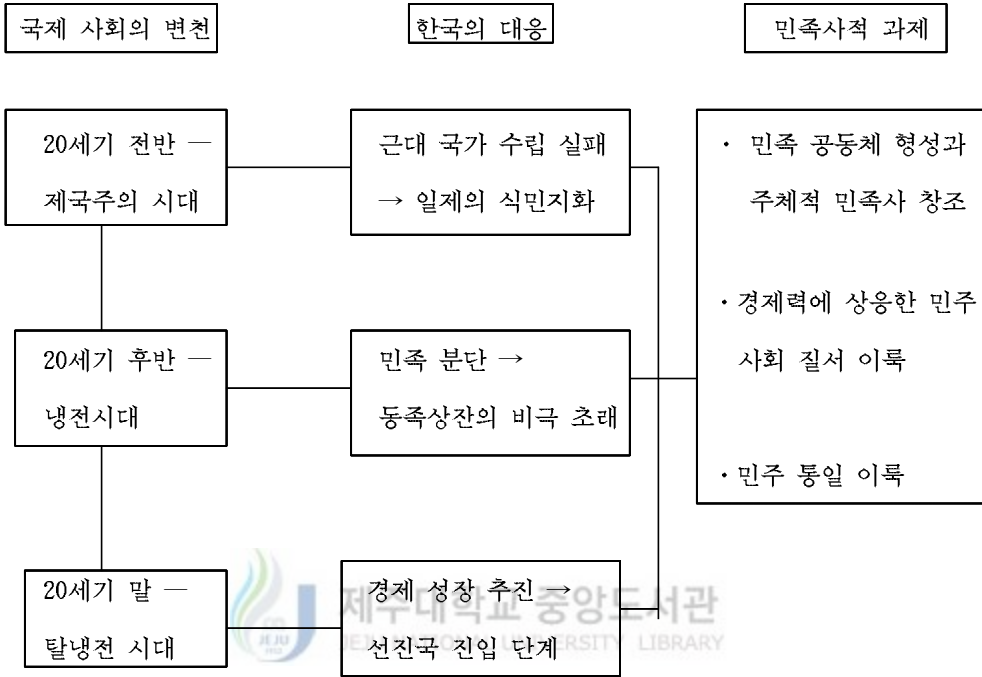
<표5> 공통사회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학습내용 1.

주 제 명	주 요 내 용	차 시
3. 국제화와 한국정치의 과제	(1) 근대 이후 국제 사회와 한국의 대응 • 근대 이후의 국제사회 • 한국의 대응 (2) 남북한의 갈등과 평화 • 광복과 분단 및 전쟁 • 전후처리 • 남북대립과 경제성장 • 7·4 남북 공동 성명 • 통일을 위한 노력 (3) 오늘날 민족사적 과제	9~12

28)

28) 상계서, p.216.

<표6> 공통사회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학습내용 2.



29)

29) 상계서, p.256.

3)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의 실태

교육과정상의 윤리과와 사회과의 통일교육의 실태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통일교육의 변천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은 <표7> 과 같다.

<표7> 학교통일교육의 변천

구 분	교육과정 시기	북한관, 교과서 서술 방향
반 공 교 육 기 ↓	~ 4차 교육과정기	적대관계, 대결의 상대로 인식
통일안보교육기 ↓	5차 교육과정기	대화와 대결의 상대로 인식
통 일 교 육 기	6차교육과정기~ (1992년~현재)	대화와 포용의 상대로 인식, 적극적인 통일모색, 민족공동체 형성에 대비

(2) 통일교육의 목표

- 민주주의 의식, 민주적 태도와 심성의 함양
- 통일의 당위성 인식, 통일을 위한 의지고취
-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공산주의 체제와 비교, 남북사회 비교)
- 통일의 조건과 장애요소, 통일의 절차와 방안에 대해 이해
- 통일 이후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제기될 문제 및 국가 양태에 대한 신념

(3) 통일교육 내용

- 분단의 현실
 - 분단의 배경과 과정
 - 남북한 체제의 비교와 현실
 -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

- 통일 준비
 - 통일의 당위성(필요성)과 의미
 -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통일여건의 변화)
 - 남북한의 통일 노력과 문제점
 - 통일논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 통일 이후의 대비
 -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그 조건
 - 통일국가 형성의 과정과 그 과제
 - 통일국가에 대한 대비

(4) 통일교육방법

- 교사용 지도서에 의하면 주제의 성격, 수업목표, 수업전개 계획, 참고 자료, 연구문제 해설, 평가문제 예의 순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수업전개 계획은 교과서 내용에 충실하게 개념 수준에서 풀이하고 있고, 주로 강의식에 의존하며 토론식도 병행하고 있다.
- 별도로 수업모형으로 비교모형, 개념모형, 탐구모형 등을 제시하고 학습내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 통일의식에서 본 통일교육의 실태

본 장에서는 통일의식을 통하여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통일의식의 실태 분석은 자체조사가 아닌 임의조사로서 선행 조사된 내용³⁰⁾을 분석함으로써 조사연구를 대신하였다.

이러한 선행 조사된 내용은 통일의식에 대한 조사연구로 설문 대상으로서는 통일교육 연수교사와 일반교사, 학생으로 구분되었으며, 통일교육 연수교사는 현행(제6차 교육과정) 통일교육을 연수받은 교사이다.

이러한 대상의 구분은 교사와 학생간의 비교를 통하여 교사의 통일의식이 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고, 또한 통일교육 연수를 받은 교사와 일반교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통일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을 파악할 뿐 아니라,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들이 초·중고에서 배운 통일교육의 효과를 파악 하는데 구분의 목적이 있다.



1) 일반적인 통일의식

북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집단간 차이는 <표8>에 제시되어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변인은 도와야 할 대상, 협력대상, 관심 밖의 대상, 경쟁대상, 적대대상 그리고 기타의 6개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북한을 협력대상(62.7%)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와야 할 대상(24.2%), 적대대상(5.7%), 관심 밖의 대상(2.3%)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통일교육연수교사집단은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

30) 통일의식에서 본 통일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권이중(1996)교수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라는 통일연수원 자료를 분석하였다.

서 전체 평균에 비해 협력대상에 있어서는 낮은(52.8%), 도와야 할 대상에 있어서는 높은(31.7%) 응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연수교사집단의 9%가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8〉 북한에 대한 인식

	도와야할 대상	협력 대상	관심밖의 대상	경쟁 대상	적대 대상	기타	계	X ²
학 생	151 (22.2)	440 (64.6)	27 (4.0)	10 (1.5)	31 (4.6)	22 (3.2)	681 (68.0)	28.958 * * * df=10
일 반 교 사	28 (23.0)	83 (68.0)		2 (1.6)	8 (6.6)	1 (.6)	122 (12.1)	
통일교육 연수교사	63 (31.7)	105 (52.8)	1 (.5)	4 (2.0)	18 (9.0)	8 (4.0)	199 (19.9)	
전 체	242 (24.2)	628 (62.7)	28 (2.8)	16 (1.6)	57 (5.7)	31 (3.1)	1002 (100.0)	

자료: 권이중(1996), 통일외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 36.

한반도의 통일시기를 예상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9〉에 따르면 응답자의 92.3%가 통일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남북통일의 시기를 10년 이내(43.5%)를 보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1-20년(31.8), 20년 이후(16%)의 시기 순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통일을 회의적으로 보는 부정적 반응도 거의 8%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통일의 시기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는 집단간에 의미 있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p<.01). 이는 학생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통일시기를 보다 먼 후일의 일 또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9〉 통일시기 예상

	현 정부 임기 내	5 ~ 10 년	11~20 년	20년 이후	통 일 불 가 능	계	X ²
학 생	8 (1.2)	275 (40.3)	214 (431.4)	121 (17.7)	64 (9.4)	682 (68.1)	21.067 * * * df=8
일 반 교 사	1 (0.8)	54 (45.0)	44 (36.7)	14 (11.7)	7 (5.8)	120 (12.0)	
통일교육 연수교사	1 (0.5)	107 (53.5)	161 (30.5)	25 (12.5)	6 (3.0)	200 (20.0)	
전 체	1.2 (1.0)	436 (43.5)	319 (31.8)	160 (16.0)	77 (7.7)	1002 (100.0)	

* * p < .01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37.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 이유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10〉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한 이유’에 있어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38.6%)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민족의 발전과 번영(25.1%), 민족의 생존과 안정(20.5%), 전쟁공포에서 의 해방(8.4%), 이산가족의 결합(5.1%)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10〉 통일의 이유

	민족동질 성의회복	민족의 생존과 안정	민족의 발전과 번영	세계평화 와 안정 에 기여	이산가족 의 결합	전쟁의 공포에 서해방	계	X ²
학 생	259 (38.2)	131 (19.3)	184 (27.1)	18 (2.7)	33 (4.9)	53 (7.8)	678 (67.8)	12.052 df=10
일 반 교 사	53 (43.4)	21 (17.20)	25 (20.5)	2 (1.6)	7 (5.7)	14 (11.5)	122 (12.1)	
통일교육 연수교사	74 (37.0)	53 (26.5)	42 (21.0)	3 (1.5)	11 (5.5)	17 (8.5)	200 (20.0)	
전 체	386 (38.6)	205 (20.5)	251 (25.1)	23 (2.3)	51 (5.1)	84 (8.4)	1000 (100.0)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38.

〈표11〉는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에 대한 세 집단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해 총 응답자의 31.4%인 315명이 ‘남북한 이념차이’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북한 집권층의 개인적 이기심’(21.6%),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15%), ‘북한정권의 장기화’(12%), ‘북한의 남화적화야욕’(7.8%), ‘남북간의 상이한 통일방법’(7.3%)의 순서로 통일장애의 요인을 꼽고 있다.

〈표11〉 남북통일의 장애요인

	남북한 간 이념 차이	북한의 남한 적화야욕	남북간의 상이한 통일방법	김정일의 정권 장기화	남북한 집권층의 개인적 이기심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남북한 전체의 민족의식 결여	계	X ²
학 생	202 (29.7)	50 (7.3)	47 (6.9)	85 (12.5)	148 (21.7)	104 (15.3)	45 (6.6)	681 (68.0)	22.828 * df=12
일반교사	49 (40.2)	8 (6.6)	6 (4.9)	11 (9.0)	30 (24.6)	15 (12.3)	6 (2.5)	122 (12.2)	
통일교육 연수교사	64 (34.23)	20 (10.1)	20 (10.1)	24 (12.1)	38 (19.1)	31 (15.6)	2 (1.0)	199 (19.9)	
전 체	315 (31.4)	78 (7.8)	73 (7.3)	120 (12.0)	216 (21.6)	150 (15.0)	50 (5.0)	1002 (100.0)	

* p < .05

자료: 권이중(1996), 통일외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 38.

통일이후의 갈등분야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는 〈표12〉에 분석되어 있다.

‘통일이후의 갈등분야’를 묻는 질문에 ‘지도자들의 정치적 주도권 다툼’(27.7%)을 가장 높은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북 주민 간의 경제적 불균형’(20.2%), ‘상이한 체제의 통합에 따른 이념적 갈등’(15.4%), ‘남북 주민간의 심리적·정신적갈등’(12.2%)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표12〉 통일후의 갈등분야

	지도자들 의정치적 주도권 다툼	통일에 따른 통일비용 의 부담	남북주민 간의 경제적 불균형	남북주민 간의 경제적 불균형	상이한 체제의 통합에 따른이념 적갈등	남북한간 분화의 차이	과도적인 사회 불안정	계	X ²
학 생	171 (25.1)	57 (8.4)	148 (21.7)	78 (11.4)	110 (16.1)	29 (4.3)	88 (12.9)	682 (67.9)	38.876 * * * df=14
일반교사	39 (32.0)	16 (13.1)	24 (19.7)	18 (14.8)	12 (9.8)	8 (6.6)	4 (3.3)	122 (12.2)	
통일교육 연수교사	278 (34.0)	26 (13.0)	31 (15.5)	26 (13.0)	33 (16.5)	7 (3.5)	9 (4.5)	199 (19.9)	
전 체	26 (27.7)	99 (9.9)	203 (20.2)	122 (12.2)	155 (15.4)	44 (4.4)	101 (10.1)	1003 (100.0)	

* * * < .001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 39.

‘남북한의 통일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73.2%)을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평화적 흡수통일’(17.45), ‘연방정부수립에 의한 통일’(7.6%)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주변국에 의한 중립화 통일’(0.7%)과 ‘군사력에 의한 무력통일’(0.4%)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13〉 남북통일의 형태

	독일과같 은평화적 흡수통일	연방정부 수립에의 한통일	주변국에 의한중립 화통일	교류협력 을통한점 진적통일	군사력에 의한무력 통일	기 타	계	X ²
학 생	110 (16.1)	45 (6.6)	3 (.4)	515 (75.5)	3 (.4)	6 (.9)	682 (68.0)	37.581 * * * df=10
일반교사	31 (25.4)	22 (18.0)	1 (.8)	67 (54.9)	1 (.8)		122 (12.2)	
통일교육 연수교사	34 (17.1)	9 (4.5)	3 (1.5)	152 (76.4)		1 (.5)	199 (19.8)	
전 체	175 (17.4)	76 (7.6)	3 (.7)	734 (73.2)	4 (.4)	7 (.7)	1003 (100.0)	

* * * p < .001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 40.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로서 응답자들은 ‘경제발전’ (35.5%)을 가장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민주주의의 확립’ (21.65), ‘국방력 강화’ (11.7%), ‘국제적 위상 강화’ (11.3%), ‘통일교육강화’ (10.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4〉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

	국방력 강화	민주주의 의 확립	경제발전	복지사회 건설	통일교육 강화	국제적 위상강화	계	X ²
학 생	73 (10.7)	143 (21.0)	222 (32.6)	60 (8.8)	90 (13.2)	94 (13.8)	682 (67.9)	39.201 * * * df=10
일반교사	14 (11.5)	23 (18.9)	49 (40.2)	18 (14.8)	9 (7.4)	9 (7.4)	122 (12.2)	
통일교육 연수교사	30 (15.0)	51 (25.5)	85 (42.5)	15 (7.5)	9 (4.5)	10 (5.0)	200 (19.9)	
전 체	117 (11.7)	217 (21.6)	356 (35.5)	93 (9.3)	108 (10.8)	113 (11.3)	1004 (100.0)	

* * * p < .001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 41.

‘통일교육의 강조점’에 대한 반응은 〈표15〉에 나타나 있으며 응답자들은 ‘국민의 통일의식 고취’ (50.15)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북한 실상의 소개’ (27.9%), ‘통일준비교육’ (24.6%), ‘정부의 통일정책해설’ (6%)의 순서이다.

〈표15〉 통일교육에서의 강조점

	북한의 위협을 강조	북한실상 의 소개	대내반체 제위험의 강조	정부의 통일정책 해설	국민의 통일의식 고취	통일준비 교육	계	X ²
학 생	10 (1.5)	187 (27.5)	11 (1.6)	44 (6.5)	364 (53.6)	63 (9.3)	679 (67.8)	33.759 * * * df=10
일반교사		37 (30.3)	3 (2.5)	4 (3.3)	48 (39.3)	30 (24.6)	122 (12.2)	
통일교육 연수교사	4 (2.0)	55 (27.5)	6 (3.0)	12 (6.0)	90 (45.0)	33 (16.5)	200 (20.0)	
전 체	14 (1.4)	279 (27.9)	20 (2.0)	60 (6.0)	502 (50.1)	126 (12.6)	1001 (100.0)	

* * * p < .001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 42.

2) 통일교육의 효과

(1)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측면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에 관한 차이검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6>는 학생, 일반교사, 통일교육연수교사집단에 따른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평균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는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이해의 모든 하위영역과 이들을 종합한 영역모두에서 통일교육연수를 받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학생과 일반교사에 비해 북한에 대한 높은 이해정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6> 북한에 대한 이해에 따른 집단별 평균비교

구 분	하 위 집 단	N	M	S D
정 치	학생	668	11.259	1.596
	일반교사	118	11.466	1.465 최소값 3
	통일교육연수교사	199	11.859	1.473 최대값15
	전체	985	11.405	1.573 중앙치 9
경 제	학생	667	8.751	1.731
	일반교사	120	8.858	1.562 최소값 3
	통일교육연수교사	198	8.944	1.722 최대값15
	전체	985	8.803	1.736 중앙치 9
사 회	학생	667	9.644	1.787
	일반교사	120	9.491	1.948 최소값 3
	통일교육연수교사	198	9.772	1.941 최대값15
	전체	985	9.651	1.839 중앙치 9
종 합	학생	654	29.652	2.937
	일반교사	118	29.864	2.501 최소값 9
	통일교육연수교사	197	30.583	2.904 최대값45
	전체	969	29.867	2.901 중앙치27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 47.

(2) 남북한 관계 인식

남북한 관계인식을 살펴보면 <표17>에서 세 하위영역 중 남북교류와 북한 핵문제의 영역에서 통일교육연수교사집단이 학생과 일반교사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남북대화 측면에서는 일반교사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세 하위영역을 종합했을 때 통일교육연수를 받은 교사집단이 그렇지 않은 학생과 일반교사집단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냄으로써 통일교육연수를 받은 교사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학생과 일반교사집단보다 더 정확한 인식정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7> 남북관계 인식에 따른 집단별 평균비교

구 분	하위집단	N	M	S D
남북대화	학생	671	5.915	1.491
	일반교사	121	6.512	1.162 최소값 2
	통일교육연수교사	198	6.222	1.356 최대값10
	전체	990	6.049	1.442 중앙치 6
남북교류	학생	662	17.787	2.513
	일반교사	118	19.398	2.219 최소값 5
	통일교육연수교사	196	19.596	2.288 최대값25
	전체	985	18.803	1.736 중앙치15
북한핵문제	학생	671	9.351	1.922
	일반교사	121	9.487	1.941 최소값 3
	통일교육연수교사	198	10.075	1.908 최대값15
	전체	990	9.513	1.940 중앙치 9
종 합	학생	656	33.071	3.811
	일반교사	118	35.432	3.233 최소값10
	통일교육연수교사	194	35.866	3.942 최대값50
	전체	986	35.919	3.966 중앙치30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인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 50.

(3)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표18>에 나와 있다.

‘분단이유’와 ‘통일형태 및 방식’영역에 대해서 학생집단은 일반교사와 통일교육연수교사집단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영역에서는 통일교육연수교사가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며, 세 하위영역을 종합한 영역에서는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18〉 통일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별 평균비교

구 분	하위집단	N	M	S D
분단이유	학생	672	2.3989	1.121
	일반교사	120	1.9926	.865 최소값 1
	통일교육연수교사	199	1.9509	1.043 최대값 5
	전체	991	2.2575	1.095 중앙치 3
통일에 대한 관심도	학생	669	9.456	2.305
	일반교사	120	10.567	1.978 최소값 3
	통일교육연수교사	199	11.156	2.043 최대값15
	전체	988	9.933	2.326 중앙치 9
통일형태 및 방 식	학생	660	25.399	3.076
	일반교사	117	25.034	2.665 최소값 6
	통일교육연수교사	198	25.116	2.945 최대값30
	전체	975	25.297	3.004 중앙치18
종 합	학생	659	37.250	4.153
	일반교사	117	37.573	3.500 최소값10
	통일교육연수교사	198	38.237	4.047 최대값50
	전체	974	37.490	3.900 중앙치30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 54.

(4)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남북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의 결과는 〈표19〉 과 같다.

이에 따르면 두 하위영역과 종합영역 모두에서 통일연수교사가 학생과 일반교사보다 현저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연수교사가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학생과 일반교사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9〉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에 따른 집단별 평균비교

구 분	하위집단	N	M	S D
통일정부 이해수준	학생	658	15.378	3.445
	일반교사	119	17.390	3.677 최소값 6
	통일교육연수교사	198	19.379	3.700 최대값30
	전체	975	16.532	3.960 중앙치18
통일정책 인식 및 만족수준	학생	662	12.319	2.263
	일반교사	119	14.109	1.904 최소값 4
	통일교육연수교사	196	15.097	1.931 최대값20
	전체	977	13.094	2.447 중앙치12
총 합	학생	655	27.702	4.800
	일반교사	119	31.479	4.919 최소값10
	통일교육연수교사	195	35.021	5.020 최대값50
	전체	969	29.639	5.688 중앙치30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 58.

(5) 한반도의 통일환경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대한 결과는 〈표20〉에 나와있다.

이에 따르면 대체로 통일교육연수교사가 학생과 일반교사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교육연수교사는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대해서 다른 두 집단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하고있다고 할 수 있다.

〈표20〉 한반도 통일환경에 따른 집단별 평균비교

구 분	하위집단	N	M	S D
한반도 주변정세	학생	650	13.129	2.036
	일반교사	119	13.219	1.979 최소값 4
	통일교육연수교사	197	13.319	1.949 최대값20
	전체	966	13.240	2.019 중앙치12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학생	659	7.351	1.317
	일반교사	119	7.361	1.280최소값 2
	통일교육연수교사	199	7.357	1.310최대값10
	전체	977	7.353	1.310중앙치 6
북한의 변 화	학생	648	13.756	1.927
	일반교사	118	14.042	1.814최소값 4
	통일교육연수교사	195	14.246	1.653최대값20
	전체	961	13.891	2.870중앙치12
총 합	학생	643	34.252	3.372
	일반교사	118	34.661	3.251 최소값10
	통일교육연수교사	193	35.280	3.152 최대값50
	전체	954	34.511	3.336 중앙치30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 61.

(6)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의 평균차이는 <표21> 과 같다.

<표21> 에 의하면 두 하위영역 뿐 아니라 종합영역에서도 통일교육연수교사가 학생과 일반교사보다 월등히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연수교사는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다른 두 집단보다 훨씬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1>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별 평균비교

구 분	하위집단	N	M	S D
통일교육의 내용·방법의 만족정도	학생	652	10.495	3.362
	일반교사	119	11.502	3.298 최소값 5
	통일교육연수교사	199	16.206	3.756 최대값25
	전체	970	11.791	4.116 중앙치15
통일교육의 영향	학생	646	11.887	3.655
	일반교사	119	13.639	3.377 최소값 5
	통일교육연수교사	200	18.035	3.120 최대값25
	전체	965	13.377	4.283 중앙치15
총 합	학생	646	22.392	6.406
	일반교사	119	25.143	6.146 최소값10
	통일교육연수교사	199	34.226	6.302 최대값50
	전체	964	25.174	7.900 중앙치30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64.

<표22> 는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별 일원변량분석으로 이에 따르면 두 하위영역과 종합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적차이($p < .001$)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통일교육연수교사는 ‘학습자료 및 교재내용’, ‘학습방법’, ‘통일교육내용’, ‘통일교육담당자’, ‘통일교육시간’ 등의 통일교육내용·방법의 만족정도 영역에서 그리고 통일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측면 즉, ‘통일에 대한 지식’, ‘북한실정’, ‘통일관’ 등의 통일교육의 영향영역에서 다른 두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또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학생과 일반교사에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표22>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별 일원변량분석

구 분	하위집단	SS	df	MS	F	sheffe'
통일교육 내용·방법 의만족 정도	집단간	4983.23	2	2491.615		학생과일반교사
	집단내	11432.29	967	11.824	210.735 * * *	학생과 통일교육 연수교사
	전 체	16416.52	969			일반교사와통일 교육연수교사
통일교육의 영향	집단간	5781.73	2	2890.864	233.719 * * *	학생과일반교사
	집단내	11898.97	962	12.369		학생과통일교육 연수교사
	전체	17680.70	964			일반교사와통일 교육연수교사
총 합	집단간	21307.41	2	10653.71		학생과일반교사
	집단내	38789.31	961	40.364	263.944 * * *	학생과통일교육 연수교사
	전체	60096.72	963			일반교사와통일 교육연수교사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인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65.



<표23> 은 통일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금까지 분석한 6개 하위변인(북한에 대한 이해, 남북관계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한반도 통일환경,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종합하여 통일교육효과에 대한 집단간 평균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23> 통일교육 효과에 대한 집단간 평균차이 : 종합

하위집단	N	M	S D	
학 생	585	184.499	14.146	
일반교사	108	195.111	14.308	최소값 4
통일교육연수교사	180	209.383	14.840	최대값20
전 체	873	190.042	17.446	중앙치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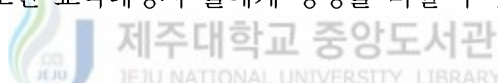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67.

세 집단 모두는 중앙치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한실정, 남북한 관계, 통일정책이나 통일환경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통일교육내용에 대해

보통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관련된 지식을 연구대상자들이 획득했기 때문에 풀이되며, 통일연수를 받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두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점수가 높은 이유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통일교육연수를 일정기간 수료했기 때문에 통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보다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24>에 따르면 세 집단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 .001$). 즉, 통일교육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6개 하위변인을 종합하였을 때 통일교육연수교사는 학생과 일반교사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통일교육의 효과를 실증하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연수교사와 일반교사를 비교할 때 통일교육연수교사는 연수를 받기 전 일반교사였다고 한다면, 이처럼 통일교육연수교사가 통일과 관련한 부분에서 일반교사보다 더 높은 이해도와 미세한 부분까지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통일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전문적인 통일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통일과 관련한 여러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24> 통일교육 효과에 대한 집단간 일원변량분석 : 종합

변량원	N	M	S D	
집단간	287375.67	2	43687.8	
집단내	178031.46	870	204.6	213.492 * * *
전 체	465407.13	872		

학생과일반교사
 학생과통일교육연수교사
 일반교사와통일교육연수교사

자료: 권이중(1996),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p. 68.

V.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여기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실태를 기반으로 하여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행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현행 고등학교 통일교육은 윤리교과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통일문제, 민족통일의 조건, 통일이후의 전망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교과내용에 한정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 '남북한 현실' 내용의 미흡

통일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윤리교과와 공통사회 교과를 살펴보았을 때 '남북한 현실'의 내용이 거의 다루어 지지 않고 있다. 북한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다 직시할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 학생수준에서 북한 사회의 실상을 통해 앞으로 통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과 통일 이후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보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할 필요가 요청됨에 따라 '북한 현실'을 다루는 내용이 통일교육의 중요사항이 되어야 한다.

(2)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 현실의 이해' 부족

북한을 비난하기 위한 남·북한 체제 비교나 분단의 현실 파악의 관점이 아니

라,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북한 현실의 이해’가 절실히 요청된다.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는 북한의 어린이나 청소년, 주민들의 생활 등을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실과 같은 내용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의 상대방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통일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현실의 이해’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등학교 정치교과에서는 통일의 당위성, 정책 등의 이론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3) 개념의 불분명

통일의 준비라는 영역은 그 개념이 매우 불분명하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인지, 통일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인지 그 영역이 불명확 함으로 인하여 통일교육의 내용 또한 지극히 원론적인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명료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의 설정이 요청된다.

(4) 사회통합문제의 영역 보충

통일 이후에 대비하여 사회통합문제의 영역이 보충되어야 한다.

현행 고등학교 윤리교과에서는 통일이후의 전망이라는 제목하에 하위영역으로 통일국가의 미래상, 국제 사회에서의 통일 국가의 역할, 미래 사회의 한국인상이라는 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여 통일의 주역으로서 학생들이 직접 겪어야 할 일들을 다루기 보다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후 학생들이 부딪쳐야 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문제들, 즉 사회통합의 문제 등의 영역을 보충해야 한다.

현행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먼저 교육과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편되었으나, 이에 따른 교재는 지금까지 통일안보 교육시기 당시의 것을 사용하고 있어 개편의 목적이 충실히 적용되고 있지 못하며, 또한 통일교육 지도자료도 구체성이 미흡하고, 일선교사 들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관련된 교과에서의 관련 지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론적 차원에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업내용의 과중, 자료의 부족 등 제반여건의 미흡으로 인해 학습현장에 충실히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교육이 도덕성을 배양하는 도덕·국민윤리과에 병합되어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2)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이상에서 현행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를 토대로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학교통일교육에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통일교육이 교육의 논리에 의해서 이뤄지기 보다 정치논리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이 남북한 정부당국의 관계 및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일관성을 결여한 채 쉽게 변하거나 심지어 정권의 정통성 확보나 체제 수호 차원에서 정치성을 띄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도 사회문화와 통일 후유증 같은 측면보다 정치·경제에 치중하는가 하면 통일과 안보라는 이중적 입장이 제시되면서도 평화통일의 의지를 심어주기 보다는 비난과 비난을 통한 대결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무조건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지상주의자와 현실적 어려움만을 내세우는 통일무용론자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마저도 동족의식, 평화통일 의지로 이어지기 보다 북한 동포에 대한 연민, 북한정치에 대한 불신감과 적개심, 나아가 불안감 또는 적대적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별화 된 교육목표의 체계화 미흡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차별화 된 교육목표의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미흡하고 과학적·객관적 논리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 등 교육목표가 단순화되고 포괄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분명한 방향성과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윤리교과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통일과업의 달성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굳은 의지를 기른다”는 식의 지극히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체험의 대상이나 실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추상적인 논리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또한 북한사회의 현실에 대한 설명은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고 있다.

(2) 통일교육의 교육적 패러다임의 불명확

이처럼 차별화 된 교육목표가 제시되지 못하고 성격이 불분명한 것은 통일교육의 교육적 패러다임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의 명확한 지침이나 계획,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지도방법과 평가 등이 일관된 패러다임에 의해 실시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는 임기응변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규범론적인 차원과 경험론적인 차원을 통합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 성격에 있어서도 통일을 “위한” 교육이나, 통일에 “관한” 교육이나라는 명확한 방향설정이 되지 않고 있다.

통일을 “위한” 교육이란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 학생으로서 그리고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결단을 촉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통일 문제를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로 삼아 심사숙고하려는 태도와 경향성, 실천 의지를 함양시켜 주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통일에 “관한” 교육이란 통일 문제에 관련된 제반 사실이나 가치를 다루는 교육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연결 고리인 동질성 회복의 필요성, 북한의 실상, 한반도의 통일 여건과 현실적 장애요인,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상세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³¹⁾ 이처럼 통일교육이 일관된 패러다임에 의해 실시되지 못함에 따른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에서 배운 통일교육이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통일에 대한 의식의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만 하면 된다는 사고나 시험에 대비하여 단순히 암기해야 할 사항으로만 전락하게 할 수도 있다.

31) 추병완(1997), 전계서, p.27.

즉, 통일교육의 교육적 패러다임이 정립되지 못하고 시대적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으로 인하여 한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습되어지는 통일교육이 전혀 별개의 것으로 학습되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와 통일원이 선정한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과 목표가 있어 왔으나 그것들의 시대적인 변화와 또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음으로써 총론은 있으나, 각론이 부실한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통일교육은 상호모순 되는 목표나 실제 사회와 부합되지 않는 교육이 되어 기대되는 교육적 성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실제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3) 통일교육의 교육내용에 관한 문제점

통일교육의 교육내용에 관한 문제점으로 첫째,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교육내용을 들 수 있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사상문제로 인한 법률적 시비나 진보성향의 분위기로 인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통일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즉, 당면문제 해결이라는 수단 가치의 강조에 치중하고 있고, 장기적 시각에서의 접근 보다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효과성의 강조로 인한 조급함 조차 반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윤리 교과에서는 조국 통일의 당위성이라는 제목하에 민족사적 요청, 민족동질성 회복의 요청, 인도주의적 요청, 국가발전의 요청, 국제 정치적 요청이라는 주제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의 욕구를 끌어내려 하기 보다는 맹목적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주입시키고 있다.

둘째, 감상주의적인 교육내용을 들 수 있다.

1차적인 민족감정에만 호소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의 조건을 논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적인 감정이며 교과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민족적인 감정과 민족사의 강조에 치중되어 있다.

물론 민족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맹목적으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요소만을 강조함으로써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이어야 할 교육이 맹목적인 교육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방법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감상주의적인 교육은 주입식 교육에만 치중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교육이 통일의 문제를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학생들도 통일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고 통일의 당위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감상적인 요소에의 치중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한결 같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등학교 시절의 학생들은 시기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한 학생들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의 내용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고 맹목적이거나 자칫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소홀히 다룰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교육 내용이다..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내용들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념과 체제, 사상과 제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부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암기하도록 그리고 편향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통일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통일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함은 특히 '북한의 실상'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북한의 현실 가운데 김일 성 및 김 정일 개인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의 실상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지도층과 주민들을 구별해야 하고 통제된 국민들 간에도 상당한 사회적 일탈이 있음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물론 교과서에서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하에 조국의 분단 상황과 북한의 실체를 바르게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북한의 정치 지도층과 일반 주민을 구분하여 인식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편향적이고 규범적일 뿐 아니라 통일의 문제를 일종의 구원의 문제, 즉 남한주민 들이 북한 주민들을 구원해 주는 식으로 의도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객관성 문제는 즉, 북한을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인 사회로 본다든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분명히 구별하지 않는 점, 북한의 사회제도와 생활방식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저해 시키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통일교육 내용상의 마지막 문제점은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규범적이라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 대한 일정한 시각과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방향과 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범적인 접근은 통일의 가치와 방향, 그리고 통일 의지를 학생들에게 확고하게 심어 주는 것이 통일교육의 주된 목표와 내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으로 북한은 “우리과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든가 “북한 동포는 못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등의 사고를 학생들에게 심어줄 뿐 아니라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시각과 가치를 전제로 하여 통일에 대한 의지만을 강조함으로써 인하여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있다.

즉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한반도 주변의 역동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편협적인 사고 보다는 객관적인 사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교육이 지나치게 규범적인 나머지 학생들에게 객관성이 결여된 천편일률적인 사고만을 강조하고 있다.



(4) 통일교육 교재의 비적절성

통일교육은 범 교과적, 교과 통합적, 가치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일교육은 윤리교과나 사회교과와 같은 특정 교과목에만 편중되어 실시됨으로써 기대하는 만족한 성과를 가져오기는 역부족할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을 다루는 교과목들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대부분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있어 학년이 거의 끝나 갈 무렵에나 다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학습평가가 종료되는 시기에 이뤄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시험에 다루지는 것에만 민감해져 있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현재 통일교육의 내용은 주로 중학교는 도덕, 고등학교는 윤리교과서의 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교육기로 설정된 제6차 교육과정의 의도와는 맞지 않게 중학교 도덕교과서에서는 전학년 과정 중 중2과정에서 1단원 70페이지 정도로 축소되었는가 하면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서는 마지막 단원에서 3학년 말에만 다룸으로써 3년 중 일부기간에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국영수 위주의 주지 교과만이 파행적으로 증시되는 현재의 교육풍토에서

도덕과나 사회과가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암기과목으로만 인식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분단국의 현실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교과목이 가장 중요한 교과목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 위주의 제도와 풍토로 인한 주지교과위주의 학교 교육풍토는 통일교육과는 너무 소원하다.

(5) 교사위주의 암기식·주입식 교육방법

통일교육은 통일후계 세대인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습득 및 사회화 과정을 거쳐 심하게 이질화된 북한 주민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통일된 세계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에 매진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과정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통일안보 문제에 대한 지식전달의 차원에 국한된 교육방법상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통일의 주체가 되어 통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과 태도를 길러주는데 실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통일교육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유발을 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나 증오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 학교 통일교육 당사자들의 관심부족과 통일교육 담당자의 문제

학교당국, 교사, 학생, 학부모의 대부분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바, 이는 근본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하에서 통일교육과정이 입시에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또한 통일교육 담당자 문제에 있어 대부분의 교사들은 통일안보교육 이전 세대이며 심지어는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아 온 세대로서 별다른 양성교육 또는 현직교육을 받은 바 없이 통일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거리감 있는 내용과 방법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은 정치성을 강하게 띠는 까닭에 파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꺼려 기피하거나 편향된 가치, 왜곡된 이념을 주입하기도 한다. 또 뚜렷한 역사의식이나 철학이 수반되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는 경향마저 없지 않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명료한 지도방법을 지니지 못한채 구태의연한 사실전달이나 개념 설명방식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는 경

우가 많다.

즉, 통일문제에 대하여 담당교사들이 자신의 소신 있는 명확한 판단이나 가치를 유보한 채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요약해 주고 그 내용을 이해시켜 주는 차원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상상력,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 방식과 논의 절차, 남북한 현실에 대한 균형 감각, 통일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적 안목의 형성, 통일 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확신과 긍지의 형성에는 매우 소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이상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살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향을 통일교육 활성화 방향, 통일교육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의 개선방향, 기타 학교 통일교육의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개선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교육의 실시

그간 우리의 통일교육은 일관된 틀이나 패러다임을 상실한 무원칙적인 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민족성원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분단 현실을 타개 하려는 민족의 대통합 운동이다. 따라서 통일은 단순한 감상적인 차원의 문제점이 아니라 남북한 체제가 맞물려서 추진되는 상호작용적 메카니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 통일교육은 바로 이러한 통일 문제의 특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균형성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

학교 통일교육은 균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 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을 균형 있게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연결 고리인 동질성 회복의 필요성, 북한의 실상, 한반도의 통일 여건과 현실적 장애요인,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상세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또한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 학생으로서 그리고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결단을 촉구하는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통일 문제를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로 삼아 심사숙고 하려는 태도와 경향성, 실천의지를 함양시킬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이라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의미 속에 내재된 복잡 다난한 문제들에 대한 사고 기능과 판단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통하여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추론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적 기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교 통일교육의 핵심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판단 능력을 배우고 이것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통합성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

통일문제를 민족 전체 성원의 삶의 문제라는 총체적 인식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범 교과적인 지식과 방법 그리고 지적기능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통일교육이 통합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특수 교과 차원의 통일교육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통일교육은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외 활동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하며,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견지하여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계속성의 원칙에 입각한 교육

통일교육은 계속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학생,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계속성의 원칙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위와 계열성이 뚜렷하지 못한채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이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더구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의해 통일교육이 철저히 봉쇄 당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교육 대상의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교육내용과 활동이 체계화 되어야 하며, 학교급별 사이에 내용의 연계성 및 차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통일관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각이요 체계화된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통일관은 ①조국 분단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틀과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일뿐 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며, 조국 통일의 민족사적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견해, 북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이해의 틀 등의 지적요소와 ②남북한 체제의 장단점의 객관적인 상호 비교, 양 체제의 상호 보완과 수렴의 방안 모색, 통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통일의 절차, 방법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의견 개진과 정당화,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남북한 및 국가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의 종합적인 분석능력, 통일 국가 형성의 과정 및 통일 이후에 직면하게 될 많은 대내외적 과제들을 추론하고 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 ③인간의 존엄성 및 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해와 수용의 관용적인 자세, 통일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균형감각, 한민족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위한 하나의 통일 국가 실현에 대한 열망과 의지·사명감,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조화라는 정의적인 요소, ④민족이 지니고 있는 고유정신과 가치회복을 위한 노력,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규범과 법규의 존중과 실천, 통일 국가의 완성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통일 논의의 실행 과정에 있어서 양보와 타협의 한계를 분명하게 실행할 수 있는 행동적 요소를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³²⁾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상상력, 탐구력을 존중하는 방향 위에서 개방적이고 탐색적인 수업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교

32) 추병완(1997), 전게서, p.29.

수기법과 학습자료들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민족공동체 윤리의식을 형성하는 교육

민족공동체는 한 민족이라는 자아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하나의 규범체계가 민족공동체 윤리의식이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의식 회복과 동시에 비인간화 상태에 있고, 또 소외된 북한 주민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구원의 의지를 형성함이 윤리의식을 회복하는 길이다.

따라서 학교교육 현장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규범체계로서의 민족공동체가 요구하는 행위 규범들을 일상 생활에서 실현하도록 가르침으로써, 북한의 학생들을 적대감이 아닌 우정과 신뢰로 대하며, 그들을 편견과 차별없이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함과 동시에 모든 문제를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원칙의 틀 속에서 해결하는 “새로운 한국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통일국가에 대한 확신과 미래상을 심어주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확신과 자긍심을 심어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냉전체제 하의 북고주의적인 통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세계 속에서 한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것의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을 북돋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이상적인 모습들 즉, 통일국가의 정치이념, 경제제도, 정의구현의 문제등과 더불어 향후 통일국가가 겪게 될 대내외적인 혼란과 시련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러한 고난을 주체적 문화역량에 의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길러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통일국가가 당면하는 제반 문제들을 자발적·협동적·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기 관리적 기능과 태도를 신장시킴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통일조국의 미래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적극적인 평화의식을 개발하는 교육

한민족공동체가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은 평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의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닌 인간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으로써, 사랑과 인도주의에 기초를 둔 사회의 조화를 위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민족의 자주성과 참된 평화의 구현, 정의와 민복주의 구현, 세계애의 고양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족의 자주성이란, 한반도가 냉전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함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지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참된 평등주의의 구현은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한 민족으로서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모든 성원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와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부여받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의와 민복주의의 구현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줄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구현되고 모든 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가운데 전체 민족성원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애의 고양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구공동체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참여정신을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³³⁾

새로운 통일교육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구성원의 노력에 의하여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창조적 과정임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구조'로서의 평화를 다지기 위한 통일교육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민족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내용으로서의 평화'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통일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냉전 시대를 체험한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적색 공포증을 통일 후계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비판적 성찰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주입하려는 전통적 교육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평화의식을 개발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33) 상계서, pp.32~33.

(6)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안보 위주의 통일교육으로 인한 북한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의 결여, 지나친 국가 사회적 교육목표 추구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된 국제관계에서의 편견, 그리고 국내적 차원의 지역주의, 일상 생활속에서의 각종 차별의식 등 각종 편견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고정관념 속에 형성되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게 하는 한편 동질성을 확인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7) 민주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민주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생활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교육의 내용인 동시에 교육의 원리로서 다뤄져야 한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가운데 진실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생활규범이 체질화되어 있어야만 한다. 더구나 통일교육의 대상인 동시에 장차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국가 속에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은 통일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시민적 자질의 함양을 통해 통일로 향하는 제반 절차와 과정 속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제반 갈등과 고통들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교육에서는 생활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교육의 내용인 동시에 교육의 원리로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2)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적차원의 개선방향

(1) 목표의 균형된 편성.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의 개선방향으로 첫째, 목표의 균형된 편성을 들 수 있다.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전수를 통해 이해력과 사고력, 판단력을 길러주는 인지적 목표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는 정의적 목표를 균형되게 편성해야 한다.

(2) 학교급별 내용의 차별화와 흥미유발.

학교급별 내용의 차별화를 통한 흥미유발을 들 수 있다.

각 대상별로 이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중복을 피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즉, 기존의 초·중·고·대학과정에서 편차일률적인 교육내용에서 탈피하여 각 과정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 또한 각 단계별로도 구체화, 세분화된 내용으로 편성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3) 이념적 교육내용 지양.

내용면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해 적개심을 고취시키거나 남북한 제 분야의 비교를 통해 지나치게 북한을 비하하고 우월감을 고취하는 내용보다는 △ 민주주의의 올바른 인식과 민주시민의 자세, △ 한국의 민족주의와 통일의 당위성 내지 통일의 지향방향에 대한 교육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4) 통일교육관련 전공자의 통일교육 담당.

통일교육 전담교사는 기존의 윤리나 철학, 교육학 정도에서 전공한 수준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한반도의 분단이나 통일문제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서 이에 관련된 학교 전공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다양한 교재의 활용.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교재의 활용이 필요하다.

즉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북한의 각급 학교 현행교과서를 구입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3) 통일교육의 정책적인 차원의 개선방향

(1) 통일교육시간의 제도적인 확보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는 도덕이 매 학기당 평균 2시간씩 배정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윤리과목의 총 이수단위가 6단위 등 매 학기 학급별 주당 1시간 수업을 6학기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통일관련 단원을 학습하는 시간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중학교의 경우 총 16시간내외, 고등학교의 경우 8~10시간 정도를 할애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간배정상 통일교육에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경우 2~3학년 중 어느 1개 학년의 주당 수업시간을 2시간으로 하며, 그중 1시간을 통일과목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통일교과서의 분철 및 내용개편.

현재 통일단원은 사회 및 윤리과목에 통합되어 취급됨으로써 시의 적절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못해 급변하는 통일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통일단원의 내용도 지나치게 이론적이며 설명위주로 되어 있어 탐구수업모형이나 협동학습모형 등 학습자중심의 체험적 수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통일교과서가 사회 및 윤리교과서에서 분철되고, 내용역시 적절하게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교과내용에 ①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사례, ② 북한주민 및 청소년

의 생활에 대한 체험적 내용, ③ 통일국가 형성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후유증 및 그 대책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교육과 관련 있는 시사성 있는 자료를 교육행정 전산망을 통해 공급하고, 시사성 있는 자료를 학습자중심 수업모형에 적합하게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3) 학습자중심의 체험적 수업모형의 개발

현재 교사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재나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서도 교사가 탐구모형이나 협동학습모형 등 학습자중심의 수업모형에 맞게 교재를 재구성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구성되는 교과연구회에 해당지역의 사회 및 윤리교사가 참여하는 「통일교육 연구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이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특성 및 학생수준에 맞는 학습자중심의 체험적 수업모형을 개발하게 하고, 이를 학교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³⁴⁾

(4) 종합생활기록부 및 대입수능시험에 반영.

입시위주의 교육에 따르는 국·영·수 우선의 교과과정 및 입시배점의 비중문제가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입시위주 교육상황에서 통일교과과정이 학업성취도 측정에 일정부분이라도 반영되지 않을 경우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과 효과성은 상당부분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고입연합고사 및 대입수학능력시험, 그리고 대학별 논술시험에 통일교육과정이 반영되는 것은 교육효과 면에서 다른 어떠한 동기부여보다도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특히 종합생활기록부에 통일교육과 관련, 학생들의 학습자중심의 체험적 수업과정에 있어서의 참여도를 반영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996), “중·고교생의 統一教育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p.22.

VI. 결론

남북이 분단된 후 반세기동안 우리 민족은 상이한 이데올로기 하에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지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 사회는 냉전 시대에서 화해·협력의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통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정한 남북통일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학교교육 역시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전준비의 측면에서 통일교육 문제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남북한 분단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게 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 장차 통일에 대한 논의와 결정에서 책임 있는 민주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냉전시대의 분단 고착화 교육의 형태를 완전하게 탈피하지 못한 채 감상적·규범적·추상적이고 현상유지적 차원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으로써 통일교육의 본래의 취지와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더구나 남북한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신장시켜 주는 교육이 자기 체제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위협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그러한 교육을 실행하여도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타산적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분단 고착화를 심화 시키는 길을 택해 왔던 것이며, 그 결과 상호간에 뿌리깊은 불신감만 심화 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은 불신과 대립의 냉전 구조 속에서 반세기를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행 학교통일교육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으로서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 민족공동체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교육,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교육,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교육이 바로 그것이며, 둘째, 통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의 개선방향으로 인지적·정의적 목표의 균형된 편성, 차별화된 교육내용, 이념적 교육의 지양과 민주주의의 올바른 인식, 민주시민의 자세, 한국의 민족주의와 통일의 당위성을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통일관련 전공자의 통일교육 담당, 효율적인 교재와 학습방법 모색을 제시하였고, 셋째, 교육정책상의 개선 방향으로서 통일교육시간의 제도적인 확보, 통일교과서의 분철 및 내용개편, 학습자 중심의 체험적 수업모형 개발, 종합생활기록부 및 대입수능시험에의 반영을 제시하였다.

민족의 공동선으로서의 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임에 틀림없으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통일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통하여 남북한 통합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차별화함과 동시에, 상실된 민족의 동질적 기반을 회복해 나가려 하고 있는 바 우리의 통일교육 역시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모두가 학교통일교육은 우리가 실질적인 마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파급효과가 큰 교육적 투자라는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교육과정, 교과서연구회편(1990), 「한국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8), 「고등학교 윤리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1998), 「고등학교 공통사회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1992), 「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1992), 「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국민윤리학회(1983), 「정치교육」, 형설출판사.
- 국토통일원(1983), 「통일문제」, 국토통일원.
- (1990), 「통일백서」, 국토통일원.
- (1992), 「통일백서」, 국토통일원.
- 김인식·최호성(1997), 「최신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과학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996), 「정책연구」, '96통일정책 포럼 자료집.
- 송건호·강만길(1983), 「한국민족주의론」, 창작과비평사.
- 조정원(1989), 「남북한 통합론」, 희성출판사.
- 유봉철(1992), 「한국교육과정사 연구」, 교학연구사.
- 이규호(1997), 「정치교육과 통일교육」, 문우사..
- 이정희·박용하·이경희(1987), 「민족통일론」, 형설출판사.
- 이중(1997), 「교육과 사회」, 배영사.
- 정영수외(1986), 「한국교육정책의 이념(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 통일연수원(1991), 「민주통일론」, 통일연수원,

- 통일원 (1993),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원.
- (1995),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원
- (1997), 「통일교육·홍보(V)」, 통일원.
- 한국교육개발원(1986), 「한국정치교육의 이념(Ⅱ)」, 한국교육개발원.
- 황병덕(1997),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정기간행물 및 논문〉
- 경남교육청(1992), “민주시민 교육 및 통일교육 추진계획”, 중등장학자료.
- 교육부(1993), “통일교육 지도자료”, 장학자료, 제89호.
- 권이종(1996),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연구”, 통일연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996),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송병순(1994), “남북한 통일교육의 현상과 과제”, 「한국교육연구」, 한국교육연구소.
- 신상조(1992),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교육월보」 제12호, 교육부.
- 윤건영(1992),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북한통일연구논문집」 제6집, 통일원.
- 이상우(1977),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한 관계 개선방안”, 「한국의 안보환경」, 서향각.
- 장경모(1993), “통일교육의 성격과 방향에 관한 고찰”, 「정신전력연구」, 국방정신교육원.
- 정세구(1993),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사회과교육」 제28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 정영수(1986), “정치교육이 전인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한국 정치교육의 개선방향 모색”, 「한국교육」, 제13권.
- 최은수(1997),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통일과정에서의 심리적 문제”,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1995),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응한 통일교육의 변천 및 관계성에 관한 고찰”, 숭실대 사회과학연구.

추병완(1992),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새교육」, 한국교육신문사.

한석지(1994), “세계 냉전체제의 붕괴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논문집」, 제39집, 제주대학교.



<summary>

Course to improve Unification Education providing against
Peaceful Unification

Kim, Eun-Kyoung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Han, Suk-Ji

This study tried to examine a course to improve problems of an existing unification education of school and to be a practical unification education providing against peaceful unification

Problems of an existing peaceful education of school follows.

Firstly, Peaceful education of school was enforced by a consideration of policy

Secondly, peaceful education was enforced by principles of political choice

Thirdly, results from these peaceful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of school has not theoretical system, education contents, and consistent framework of education method, but served to embody political goal.

Courses to improve these problems follows.

Firstly, unification education of school must be activated education in order to form a view of right unification, cultivate an ethical consciousness for body of a nation union and self-conceit and self-admiration to future of unification nation, dissolve prejudice and fixed idea and so on.

Secondly, contents and methods must be forced a balanced organization of recongnitive and affective goal, discriminated of educstion, a sublation of ideological education and right comprehension of democracy, an attitude of democratic citizen, a solidification of education text and learning method and so on.

Thirdly, educstional policy have to be presented a systematic security of unification education time, division and reorganization text, development of teaching model based on learners, reflection to admission testing into university of synthetic life records and so on.

